

# 원희룡 장관, 충북 지진 발생 상황 긴급 점검

## -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충격과 손상 집중점검 지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9일(토) 오전 10시 40분경 충북 괴산 인근 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별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했다.
  
- 원 장관은 “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한 만큼,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충격과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”며, “공항, 철도, 도로, 건설현장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해 줄 것”을 지시 했다고 밝혔다.
  
- 아울러, “지진은 여진 등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해 줄 것” 당부했다고 밝혔다.

2022. 10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